

주일의 말씀

하느님 나라를 전하자



류승기 바오로 신부
성 정하상 바오로성당 주임

팔공산 골프장 입구에 굿을 하는 골짜기가 있다. 요즘도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 가서 자신들의 소원을 빌며 굿을 한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그 모습이 좀 그렇다. 특히나 하느님을 믿는 우리들의 시선에서 바라볼 때는 아무런 소득 없는 미신행위에 지나지 않는 모습으로 보일 것이다. 그렇지만 그 곳에서 굿을 하는 사람에게는 그 시간이 참으로 진지하고도 엄숙한 시간으로 느껴질 것이다. 보는 사람의 관점에 따라서 전혀 다르게 보여 진다.

우리들도 예수님께 기도를 드린다. 성모님께도 기도를 드린다. 우리가 드리는 기도 그리고 기도하는 내 모습을 보고 하느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무슨 생각을 할까? 혹시 기도하는 우리들의 모습을 굿당에서 굿을 하는 그들의 모습과 같은 시선으로 바라보지는 않을까? 비록 우리들이 기도의 대상이 다르고 그 대상이 가지고 있는 능력이 다르다고 강조한다 하더라도 하느님을 모르는 사람들의 눈에는 그 기도가 그 기도이고 그 소망이 그 소망으로 보여 질 것이다. 실제로 중요한 것은 대상이 아니라 기도하고 있는 우리들의 마음이 집일 것이다. 우리들의 기도하는 자세가 굿당에서 굿을 하는 그들과는 다르고 말할 수 있을까?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셔서 하느님 나라를 선포하셨다. 하느님 나라가 우리들 가운데 이미 시작되었다는 증거로써 징표들을 보여주셨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과 같이 하느님 나라를 선포하였으며 하느님 나라가 선포된 당연한 결과로 아마 징표들도 주어졌을 것이다. 하느님 나라가 전해졌으니 악마가 물러나는 것은 당연

한 일이고 하느님의 평화가 그들에게 주어진 것도 당연한 일일 것이다. 그러나 사람들은 하느님 나라보다 그 징표에 더 관심이 많은 법이다. 아마도 보통 사람들은 차라리 하느님 나라보다 징표만을 원할지도 모른다. 아무리 그렇지 않다 말하더라도 그것이 인간이 종교에 대해 가지는 욕심일 것이다.

예수님께서서 외딴 곳으로 떠나자 많은 군중이 육로로 달려가 예수님 일행보다 먼저 목적지에 도달했다고 복음서는 이야기 한다. 그들이 그렇게 열심일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일까? 군중들이 진정 하느님 나라의 의미와 예수님의 말씀을 알아들어서였을까? 아니면 부수적인 표징에 관심이 있어서였을까? 만약 그들이 하느님 나라의 의미를 알았다라면 예수님을 그렇게 취급했을까? 추측컨대 몰랐던 것이 분명한 일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서는 그들을 보시고 가엾은 마음을 가지셨다고 복음서는 이야기한다. 그리고 그들이 알아들었던 못 알아들었던 예수님은 그들에게 많은 것을 가르쳐주기 시작하셨다. 군중들이 어떤 의도로 거기에 모였든, 그들이 알아들었던 간에 상관없이 예수님께서서는 자신의 일을 성실히 수행하셨다.

오늘도 누군가는 예수님께서 하셨던 일을 해야 할 것이다. 이제 기도하는 것이 신앙이 아니라 하느님 나라를 전하는 것이 신앙임을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주자. 그리고 그 복음을 전하는 일을 통해서 우리들이 굿당을 찾는 그들과는 전혀 다른 신앙을 가진 사람임을 보여주도록 하자.

생명의 말씀

그들은 목자 없는 양들과 같았다. 마르 6, 34참조

예레 23,1-6 에페 2,13-18 마르 6,30-34.

우리는 누구와 사랑하는 걸까

구자명 임마꼴라따 | 소설가

가끔 이런 상상을 해 봅니다. 창세기에 하느님께서 남자와 여자의 시조인 아담과 이브를 창조하실 때 각각 분리된 개체가 아닌, 한 몸 안에 두 성(性)이 공존하는 형태로 만드셨다면 어땠을까? 그랬다면 아마 인간은 자웅동체의 달팽이처럼 지리멸렬하긴 해도 양성(兩性)의 절대 조화 속에 갈등 없이 살아가는 존재가 되었을지 모릅니다. 최소한 지금의 우리처럼 언제 어느 때 '전쟁 상황'에 돌입할지 모르는 그런 불안한 관계는 아닐 거예요. 아담과 이브 이래 우리가 거쳐 온 남녀관계의 역사는 상호소모적인 불행을 내재한 고통스러운 사랑의 역사지요. 우리는 열렬히 사랑하다가도 서로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끊임없이 번뇌하고 다툽니다. 그러다가 급기야는 부글부글 끓어오르는 애증에 시달리고 지친 나머지 쓰라린 회한을 품고 서로에게서 등을 돌리기도 합니다. 애초에 사랑을 하지 않았다면 그런 회한도 결렬의 아픔도 겪지 않을 텐데, 왜 우리는 자꾸 사랑을 하는 걸까요? 최근에 위기의 부부가 된 한 친구의 하소연을 듣고 나 자신의 상황에 대해서도 새삼 돌아보게 됩니다.

친구의 남편은 수년 전에 계단에서 넘어져서 뇌의 한 부분에 타격을 입었습니다. 다행히도 수술이 잘 되고 회복도 순조로운 편이라 지속적으로 약간 복용하면 거의 정상적인 생활이 가능하게 되었지요. 그러나 다치기 전과 달리 스트레스 상황을 헤쳐 나가기에는 신경계 균형이 불안정하고 또 불시에 발작을 일으킬 수도 있어 직장도 잡고 취미활동으로 소일하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원래 맞벌이 부부였던 그 가정은 이제 친구의 경제활동에 전적으로 의지하게 된 만큼 이전처럼 여유롭진 못하지만 아이들도 이제 웬만큼 다 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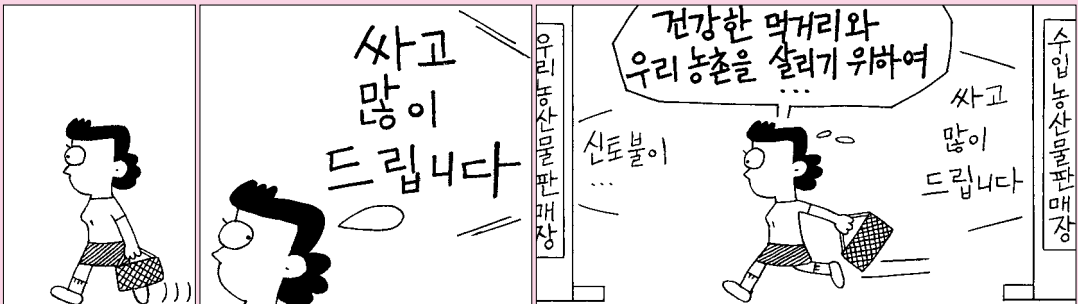
장한 터라 생활에 큰 어려움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내년 들어 친구의 남편은 불안한 몸 상태에도 아랑곳없이 알코올에 자신을 방기하는 일이 잦아졌습니다. 친구는 눈물로 호소하며 달래기도 하고 때론 계속 이러면 헤어질 수밖에 없다며 자극을 주기도 하는 등 갖가지 방법으로 남편을 회유하려 애썼지만 때마다 반성하고 버릇을 고치겠다고 약속하는 그 당장 잠시뿐이었습니다. 그는 언제 맹세했냐는 듯 곧 다시 고질적인 음주 습벽에 함몰되어 가정의 평화와 자기 심신의 건강을 망가뜨리곤 한다는 것입니다. 얘기 끝에 친구는 씁쓸하게 덧붙였습니다. 남편이 내가 아니기 때문이나 자신처럼 생각하고 느끼지 못하는 것이 그의 한계이듯, 나도 그가 아니기 때문에 그 자신처럼 생각하고 느끼지 못하는 나의 한계가 있는 거지.

친구는 헤어지고 싶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남편을 여전히 사랑한다고도 말합니다. 남편도 자신을 여전히 사랑한다는 걸 알기때문에 둘이 헤어지면 남편이 얼마나 더 망가질 지도 안다고 합니다. 그걸 알면서도 헤어지면 자신은 또 얼마나 불행할까를 생각하면 역장이 무너진다고 합니다.

나는 그녀가 결론을 짓는 데 아무 도움도 줄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이야기를 들은 이후로 머릿속에서 계속 맴도는 생각이 있습니다. 우리는 누구를 죽도록 사랑하기도 하고 사랑한 만큼 미워하기도 하지만 그 상대의 깊은 진실, 즉 그 사람 심연의 욕구나 결핍에 대해서는 아는 게 거의 없이 그러는구나! 이것 참 문제로구나. 바오로 사도께서 말씀하신 '참고 기다리는' 사랑을 하려면 뭔가 좀 더 알아야 할 텐데...

현명한 선택을...

박성규 엘리지오





오늘의 미사

연중 제16주일
(농민주일)

입당성가

448 능하신 말씀

화답송

◎ 주님은 나의 목자, 아쉬울 것 없으라.

복음 환호송

◎ 알렐루야.

봉헌성가

216 십자가에 제헌되신

영성체송

당신 기적들 기억하게 하시니,
주님은 너그럽고 자비로우시다.
당신을 경외하는 이들에게 양식을 주신다.

파견성가

458 주의 말씀 듣고

영성의 향기 성령

::성령과 교회

오늘은 성령과 교회와의 관계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령은 교회를 형성하시는데 모든 신자들은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고 성령의 궁전이 됩니다. 성령은 그리스도의 여러 가지 은혜, 즉 은사를 베푸시는데 말씀의 은사, 지혜, 지식, 믿음, 치유, 기적, 예언, 방언, 해석, 식별, 봉사, 격려, 지도의 은사들입니다. 바오로 사도는 사도나 전도사와 교사는 그 자체로서 은사라고 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복음을 전하는 사도의 은사가 가장 귀중하다고 하면서 모든 그리스도 신자들을 하나로 묶어 주는 것은 성령의 은사 중 가장 위대한 사랑의 선물이라 했습니다.



::성령 7은(1)

오늘은 성령7은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는 성령강림일에 성령7은에 대한 제비뽑기를 한 두 번씩 해 보신 경험이 있으실 것입니다. 세례 때 성령의 은총을 받아 신자가 된 우리는 성사를 받을 때마다 성령의 은총과 은사를 받아 하느님의 자녀로 모든 활동들을 거룩하게 할 수 있게 됩니다. 신자들의 삶 안에서 언제나 성령의 은총이 있지만 우리가 하는 행동 하나 하나가 거룩하게 이루어지는 데는 은총과 같이 주어지는 선물이 있습니다. 이 성령의 일곱 가지 선물은 인간의 지성을 비추는 네 가지 선물과 의지를 비추는 세 가지 선물로 나누어 볼 수가 있습니다.

- 권 가타리나 수녀 -

짧은 글 - 깊은 생각

성공의 비결



옛날에 한 청년이 임금님을 찾아가 인생의 성공비결을 가르쳐 달라고 말하였습니다. 임금은 말없이 컵에 포도주를 가득 따르고는 청년에게 건네주면서 별안간 큰소리로 군인을 하나 부르더니 "이 젊은 청년이 저 포도주잔을 들고 시내를 한 바퀴 도는 동안 너 칼을 빼어 들고 그를 따라라. 만약 저 청년이 포도주를 엺지 때에는 그의 목을 내리쳐라!"라고 명령했습니다. 청년은 식은땀을 흘리며 그 잔을 들고 엺지르지 않고 시내를 한 바퀴 돌아왔습니다. 임금님은 청년이 시내를 도는 동안 무엇을 보고 들었는지 물었습니다. 청년은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듣지도 못했다고 대답했습니다. 그러자 임금은 큰소리로 다시 물었습니다. "넌 거리에 있는 거지도 장사꾼들도 못보고 술집에서 노래하는 것도 못 들었던 말이나?" 청년은 다시 "네, 저는 아무것도 보지도 듣지도 못했습니다."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랬더니 임금은 말했습니다. "그렇다. 이것이 네 인생의 교훈이다. 네가 거리를 한 바퀴 돌면서도 그 잔만 바라보고 정신을 집중시킨 것처럼 너의 인생에 모든 것을 집중하고 살면 성공할 것이고 유혹과 악한 소리도 네게 들려오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세상에서 일을 해가면서 내가 하는 일에 만족하지 못하고 주위에 있는 다른 일들이 더 좋아 보이기도 하며 그곳에서 더 큰 만족을 얻을 것처럼 생각을 하여 자꾸 주변을 기웃 거리기도 합니다. 그러나 참다운 성공의 비결은 자기가 하는 일에 보람을 가지고 최선을 다할 때 그 일에 성공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다음에 주어질 또 다른 일에도 성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 모임행사 ★

하계 2박3일 성령세미나

- 때: 7.31(금)~8.2(일)
- 장소: 한티 피정의 집
- 신청: 성령쇄신봉사회 551-9111 선착순 마감

여중 · 교생을 위한 라우라 여름 캠프

- 때: 7.31(금) 14:00~8.2(일) 14:00
- 문의: 010-9353-6052/055-255-8295
- 장소: 살레시오수녀회 광주 피정의 집

제12회슈발리에축제(예수성심초교남,여수도회)

- 대상: 미혼 청년 남, 여 선착순 70명
- 때: 8.14(금)~16(일), 장소: 부산수녀원(회비4만원)
- 문의: 010-9330-3104 / 010-4846-6956

제3회 대구평화방송 사장애 배드민턴대회

- 때: 9.19(토), 장소: 대구시민체육관
- 참가요강: www.dgpbcc.co.kr 참조
- 문의: 대구평화방송 251-2610

★ 성소모임 · 피정 ★

한국외방선교회 월례미사

- 때: 7.21(화) 14:00, 곳: 신암성당
- 7.22(수) 14:00, 곳: T.아쿠아니스성당
- 문의: 02-3673-2525

젊은이들을 위한 꽃동네 성령피정(회비: 1만원)

- 주제: 성령을 받아라(문의: 011-490-5345)
- 대상: 1. 성령기도회에 관심있는 젊은이
- 2. 중등부(단체 미리 접수)
- 때: 8.14(금) 14:00~8.16(일) 16:00
- 장소: 음성 꽃동네 사랑의 연수원 중강당

제28차 젊은이들을 위한 수도생활 체험학교

- 때: 8.14(금)~16(일)
- 장소: 성 베네딕도회 왜관 수도원 피정의 집
- 대상: 고등학교 이상~만 31세 이하 미혼 남녀
- 준비물: 휴대폰, 갈고리, 작업복, 목수, 산악장비, 모자, 참가비(만5천원)
- 문의: 019-9353-2323 (http://cafe.daum.net/osbfriends)

폼테라피 피정(제미테일러교수)

- 대상: 폼에 관심이으신분, 때: 7.27(월)~29(수)
- 주최: 푸른평화예술치료연구소 794-6022
- ※개인상담, 예술치료사 자격증만

거룩한 독서(Lectio Divina) 피정

- 소개피정: 8.11(화)~12일(수) 1박2일
- 성직, 수도자 피정: 9.4(금)~11일(금) 7박8일
- 문의: 연화피정정의 집 054-973-4835/011-542-4835

★ 모집 ★

교구 가톨릭대전기사 사도회 회원 추가모집

- 문의: 011-812-8181

한티피정의 직 직원모집

- 기간: 7.15(수)~24(금)
- 모집: 성지관리 남1명, 사무보조 여1명
- 서류: 자필이력서(사진부착), 교적사본 각1통
- 문의: 한티피정의 집 054-975-5151

성체신심세미나

- 때: 8.3(월)~5(수) 2박3일, 장소: 한티피정의 집
- 내용: 성체현시 성체조배, 강의, 면담성사, 안수
- 강사신부: 이홍근(바오로), 하성호(사도요한), 송계준(마르코) 서덕교(야고보), 정기모(요한보스코) 지도신부
- 주관: 대구지속적인성체조배회, 문의: 010-2515-3376

환경위원회 친찬프로그램 안내(253-3655)

- 때: 7.21(화)~8.25(화) 6주과정(10:00~12:00, 14:00~16:00)
- 장소: 교구청 교육원 가동 2층 206호
- 회비: 교재포함 8만원(대구은행 04013081023, 환경위원회)

가톨릭어성교육관 수강생 모집(254-6115)

- 의사소통을 돕는 부모교육 8(7)개월개강매주목 1400~1600(6주8만원)
- 감동변화치유공-정신치유 8(7)개월개강매주목 1400~1600(6주8만원)
- 재미있는 사전활영 7(월)개강매주일 1000~1200(15주15만원)
- 재미꽃이 매주 1000~1200(년과정) 안꽃이 매주 1300~1500(6개월과정)

교육생모집(자격증반 & 취미반 & 유아반)

- 천연비누 & 천연화장품 만들기, 플루트, 바이올린, POP
- 문의: 가톨릭문화관 476-6211

가톨릭문화관 내 사무실임대(1층 8평)

- 문의: 011-9579-7382 사무장

2009 가톨릭적 대안 교육 연구

- 대상: 교사, 학부모 및 대안교육관계자
- 때: 8.14(금)~15(토) 1박2일(회비: 5만원)
- 장소: 양업고등학교 인성교육관
- 문의: 043-260-5076.8 (http://www.yangeob.hs.kr)
- ※ 2010학년도 신입생 입학전형 안내 있음.

수도자와 함께하는 성지순례

- 기간: 9.2(수)~14(월) / 12박 13일
- 순례지: 이태리/스위스/프랑스
- 문의: 평화순례여행사 02-723-3371

여대생 기숙사 안내

- 대상: 여대생, 대학원생 (종교무관)
- 위치: 서울 성북구 정릉 국민대학 건너편
- 문의: 원죄없으신마리아 교육신교 수녀회 02-911-7580 (http://www.rcm1892.net)

★ 안 내 ★

“내 손안의 성당” 신자용 휴대폰

- 가톨릭 대구지역 보급 시작(www.j2y.co.kr)
- 특징: 성경, 기도문, 예식서 등 휴대폰에 내장
- 성당, 성지, 성인, 주보, 매일미사 등 검색 기능
- 신청문의: 010-3174-5978 대구시내 성바오로딸서원

대구가톨릭대학교병원 09년 보험공단검진

- 대상: 08년도 미수검자 및 09년도 대상자
- 문의: 대구가톨릭대학교병원 650-4591
- 1차, 암, 영유아검진(암검진은 꼭 예약해야됨)
- 건강검진은 성인병 및 암조기 발견에 좋습니다.

대구가톨릭대학교 도서관 안내

- 대구가톨릭대중앙도서관에서는 2014년 개교 100주년을 준비하며 가톨릭도서 및 교서를 기증받고 있으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 문의: 850-3265 (http://lib.cu.ac.kr)

※7.27(월) 가톨릭미용인회 월례회의 ‘빛모임’은 없습니다.

미 사	일 시	장 소	미 사	일 시	장 소
포항지역 군중후원의 미사	7월 20일(월) 오전 11시	죽도성당	가두성교단 월례미사	7월 20일(월) 오후 12시 30분	계신문화관 3층
4대리구 경주지역 성소후원의 월례미사	7월 20일(월) 오전 11시	성동성당	김천지역 밀알후원의 미사	7월 21일(화) 오전 10시	평화성당
안타성지후원의 월례미사	7월 20일(월) 오전 11시	한티순교성지	공소후원의 미사	7월 25일(토) 오전 11시	남산성당

수맥 흙(돌)침대
대표전화 : 1588-5335
“산소가 나온다”
대표 이경복 바오로

약손 척추 교정원
디스크 · 비만 · 신경통
근골격계, 신경계 질환
지압, 교정, 자세, 체질검사

28년 전통 이 루카 425-7959
대구역 옆 라이프 상가 245-1호
www.m-hand.co.kr

밝은 눈 안과
원 장 임흥식(라파엘) 장주희(렐라나)
전문외 · 임흥식 · 퇴원 초음파백내장 · 라식수술

수술 전문 병원
달성고 맞은편 654-9660

지하철 2호선 두류역(9번출구) 앞

대장 · 항문(치질, 변비) 전문클리닉
늘 시원한 **약문외과**

원장 의학박사 : 노성균 (아우구스티노)
치질 · 변비, 소아변비 · 변실금, 위 · 대장내시경
여성전문 입원실 · 지하 무료주차장 완비

959-7175(치질치료), www.hangmun.com

신전대우아파트 북현오거리
신원분원

신성교 김씨세족관 대구은행 시장 200m

2484 익스프레스
칠곡 313-2484
서구 566-2484
달서구 637-2484
수성구 761-2484

한약기(바오로) 011-514-3855

대구가톨릭대학교 'CU인재학부' 신설

- 모집단위 : 기초의치, 약학전공 / 고유공직, 법학전공
- 모집인원 : 50명(지원계 30명, 인문계 20명)
- 장학혜택 : 입학금 및 8학기 간 수업료 전액 면제를 비롯한 다양한 장학혜택과 특전 부여
- 입학상담 : 053-850-2580

대구가톨릭대학교

백 신경외과 의원 정형외과
(척추 · 관절염 및 뇌 · 신경전문 의원)

○ 요통, 좌골신경통, 류마티스, 오십견
○ 뇌졸중, 어지럼증, 손발저림, 골절

☎ 628-4111, 4110(백운일(스테파노))
(성당시장거리 확장이전)

라식, 백내장수술전문

김기산안과
김기산 안과
의학박사 / 전문의 김 기 산 (안드레이)
(전 동산의료원 안과과장)

반월당 대구 학원 9층
☎ 257-8875 www.kisanlasik.co.kr